

농어촌공사 경기본부, 농촌공간계획 수립 위한 자문위원단 출범

✎ 전상우 기자 | ㉠ 승인 2025.04.13 12:05

공사 경기본부 이천시, 포천시, 양평군과 위·수탁 계약 체결
경기농촌혁신자문단, 각종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



▲ 경기혁신자문단 출범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가 이천, 포천시, 양평군과 함께 농촌공간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13일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이천, 포천, 양평군 등 3개 시·군을 대상으로 현황 파악, 비전·목표·전략 설정 및 해결방안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다른 시·군과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농촌공간계획 참여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

이를 위해 농촌경제, 기후, 재생에너지, 축산, 스마트팜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기농촌혁신자문단이 새롭게 출범했다. 경기농촌혁신자문단은 농촌 비전과 실행 전략을 담아낼 핵심 기구 역할을 맡는다. 학계와 연구기관, 실무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전문성을 결집하는 만큼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자문위원단은 ▲농촌지역 경제 및 인구 구조 변화 분석 ▲기후위기 대응 및 농업·농촌 탄소중립 전략 ▲재생에너지와 농촌의 조화로운 상생방안 ▲축산·스마트팜 등 미래농업 기반 마련 등 분야별 주요 현안에 대해 심층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향후 단계별 실행계획 수립 과정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에 의한 것이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지난해 3월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농촌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됐다. 법 시행에 따라 경기도 내 15개 시·군은 10년 단위 중장기 전략계획을 2026년까지 수립해야 한다.

김종성 본부장은 “위기의 농촌 공간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중장기계획 수립이 법제화된 만큼 변화와 혁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농촌 현장에 대한 공사의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 맞춤형 공간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상우 기자 awardwoo@incheonilbo.com



전상우 기자 awardwoo@incheonilbo.com